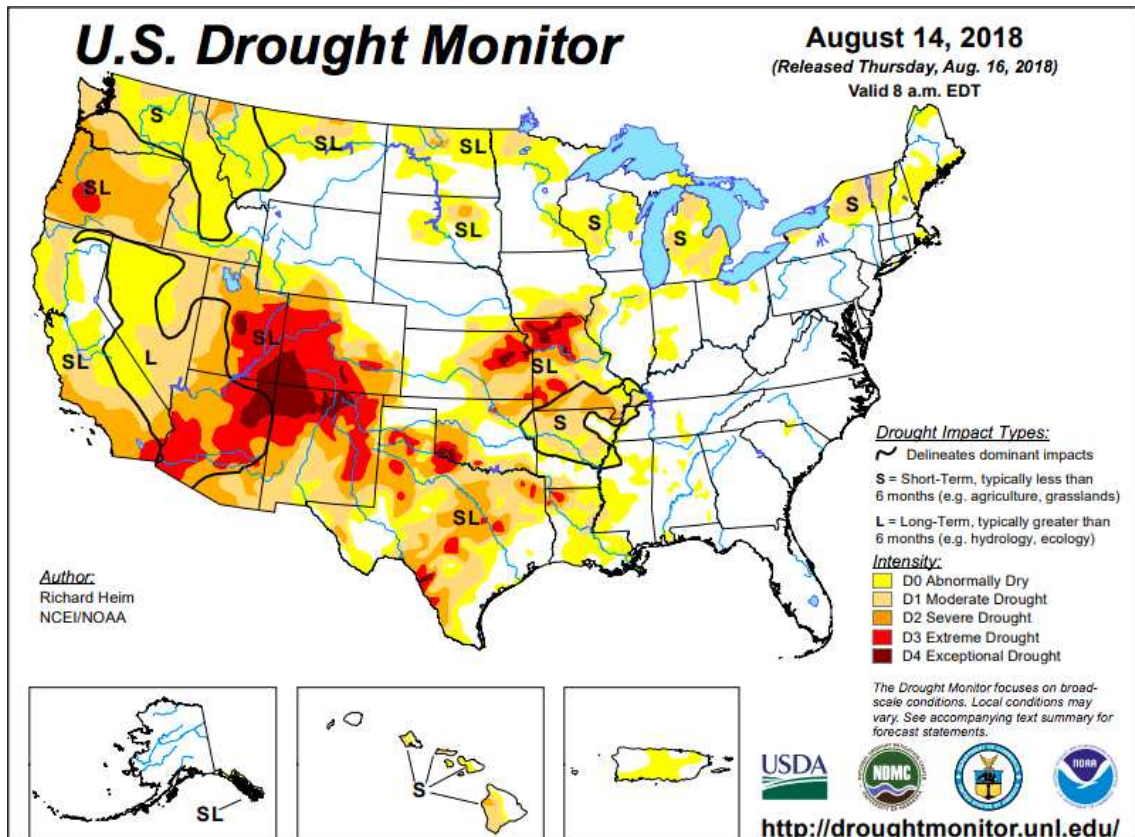


8월 2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34)

□ 미국 기후 현황(8/12~8/18)

중부에서부터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렸다. 남동부 평원 일대에서도 곳에 따라서 4인치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비로 인해 농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서부 일대에서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5°F 이상 높았고,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부터 북서부 일대에서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이 몰려오기도 했지만, 비의 양이 많지 않았고, 번개로 인한 산불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 □ 농업 현황 요약(8/13~8/19)

남부의 오하이오 일대 및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지역 등에서는 비가 내렸다. 오클라호마 동부, 알칸서스 서부, 켄터키 북부, 펜실베니아 북동부 등에서도 3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반면,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 및 로키산맥 인근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알칸서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4°F 이상 낮은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위스콘신, 미시간 등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4°F 이상 높은 날이 이어졌다.

## □ 세계 기후 현황(8/12~8/18)

■ 유럽: 북부 일대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렸고, 남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를 이어갔다. 잉글랜드 남동부에서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5~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지난 여름 동안 기승을 부렸던 가뭄을 상당 부분 해소해 주었지만 수확량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발칸반도 서부, 이탈리아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10~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기온은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높았다. 러시아 남부의 Caucasus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서 1~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지역에서는 태풍이 연달아 지나가면서 산사태가 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북동부 일대 및 양쯔강 동부 등에서는 100~2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일본 남동부 지역에서도 태풍이 상륙하면서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반면, 한반도 전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고 가뭄도 이어지고 있다.

■ 호주: 서호주에서는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남호주, 빅토리아 남부 및 뉴 사우스 웨일즈 남동부에서도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퀸즐랜드 남부 등의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이어갔다. 주요 밀 재배지역의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해 1°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아르헨티나: 중부의 주요 농업지역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Buenos Aires 중부에서는 주 중반에 5~15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지만 비가 그친 후 맑은 날씨를 회복했다. Cordoba 남부에서부터 Entre Rio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기온은 평년에 비해 2~3°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북부 지역에서는 Chaco, Formosa 일대에서만 비가 조금 내렸다.

■ 브라질: 남부의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8월 13일 기준 밀의 개화률은 75%였고, 이모작 옥수수의 수확률은 6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준 Rio Grande do Sul의 밀 개화률은 8%를 기록했다. Mato Grosso의 8월 17일 기준 옥수수 수확률은 99%였고, 면화의 수확률은 53%를 기록했다.

